

외부인(차량)출입 통제, 이론은 강하나 실천이 안된다.

□ 취재/김동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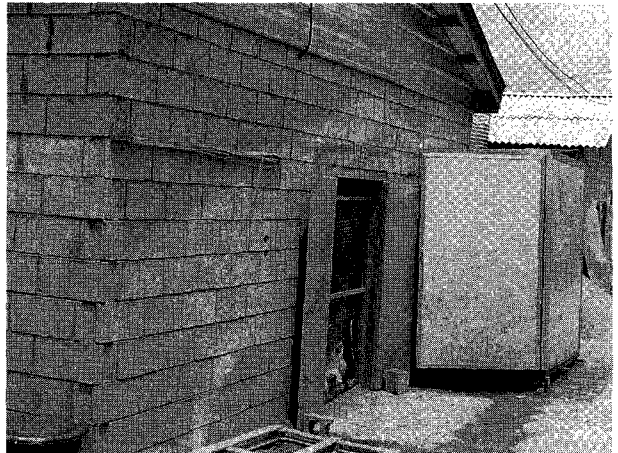
최 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병됨에 따라 양계업계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계사의 방역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산란계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금티푸스가 종계쪽도 이미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따라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차단을 위해 관심을 최대한 쏟고 있으나 각 농장에서부터의 방역 인식 및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종계장들이 종계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병아리 부족으로 종란수입에 관심을 갖는 등 업

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생산성이 낮은 저능력계의 경우 도태를 시켜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병아리의 고가유지로 생산성이 낮은 계군이 여전히 관리되고 있어 관리소홀



△ 외부 질병으로 부터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종계장(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찾아볼 수 없다.)

로 인한 질병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처럼 종계의 현 당면문제는 종계의 생산성 저하이며 이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질병에 의한 피해일 것이

다. 각 종계장 마다 방역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완벽한 방역프로그램에 의해 접촉 및 투약을 하여도 외부로부터의 병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출입자들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면 '깨진독에 물붓기식'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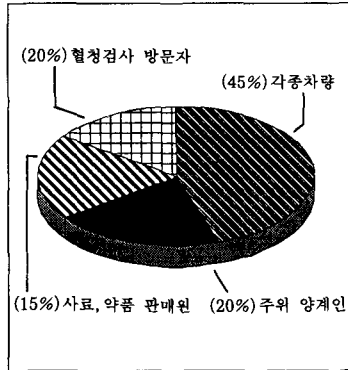
1. 종계장 방역관리 실태 설문 조사

본고는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각 종계장들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29개 농장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종계장의 질병방역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질문은 자체적으로 관리(94%), 외부의 권유대로(3%), 형편에 따라(3%)로 대부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계장과 실용계 농장과의 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1Km이상(76%), 1Km이내(10%), 500m이내(7%), 100m이내(7%)로 나타나 질병전파의 위험지역으로 볼 수 있는 500m이내의 실용계 농장도 14%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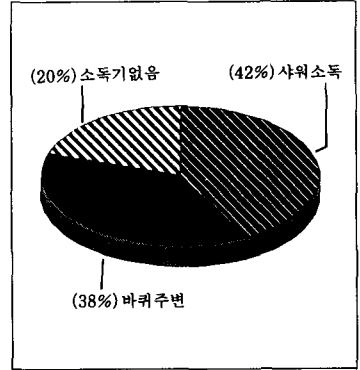
〈도표1〉농장출입시 부담스러운 대상?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 농장출입시 방역상 가장 부담스러운 대상에 대해서는 각종 차량(45%), 혈청검사 방문자(20%), 주위 양계인(20%), 사료,약품 판매원(15%)로 나타나 차량보다는 사람의 출입이 55%로 많았으며 그중 혈청검사 방문자도 20%로 사료,약품 판매원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복장,차량으로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관련인들이 가장 부담스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4. 폐사계 처리는 소각(55%), 매몰(31%), 짐승(개)의 먹이(14%), 주변에 방치(0%)로 대부분은 소각,매몰 처리를 하나 일부에서는 짐승의 먹이로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종계의 중추구입을 묻는



〈도표2〉출입차량 소득은?

질문에 자체육성(86%), 위탁구입(14%)으로 나타나 자체사육 시설이 부족한 일부 종계장이의 질병확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6. 농장의 차량소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량용 사위소득기 사용(42%), 소득분무기로 바퀴 주변에만 살포소득(38%), 차량소득기가 없다(20%)로 나타나 각종차량의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퀴 주변에만 간단히 분무살포하는 농장의 경우 바퀴에 붙은 흙이나 오물을 농장내에 더 잘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남겨 방역에 별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출입자 방명록에 대해서는 있다(48%), 없다(52%)로

나타나 질병이 발생한 후에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출입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사위장과 탈의실이 있는냐는 질문에 있다(58%), 없다(42%)로 나타나 출입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샤워를 통한 소독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농장입구에 발판소독조가 비치되어 있는냐는 질문에 있다(79%), 없다(21%)로 나타나 농장입구에 필수적인 발판소독조마저 없는 농장이 21%라는 것은 질병에 대한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설문에 응답한 농장들은 대체적으로 샤워시설을 갖춘 농장이 58%로 나타나 과거보다 방역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를 안고있는 종계장들의 대부분은 과거의 시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종계장 주위에 실용계 농장은 물론 타가금이 사육되어지고 있어 청정지역을 유지하기란 상당히 힘든 상황이며 농장 출입구에는 방어선이 전혀 없고 차량 소독기를 설치한 곳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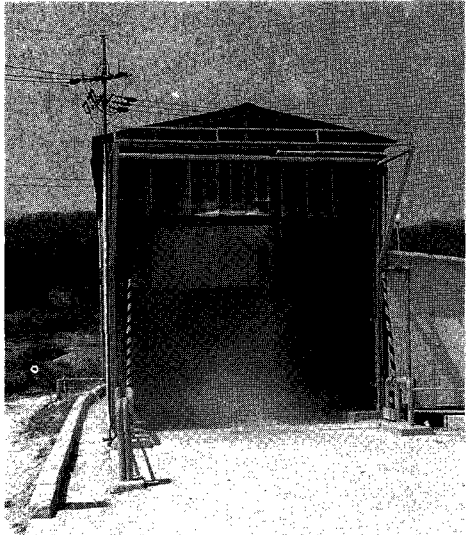
도 운전석까지 완벽하게 방역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계사입구에는 발판 소독조가 아예 없는 농장이 상당수 차지하는 것은 질병이 찾아올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2. D종계장의 방역 사례

경기도에 위치한 D종계장의 경우 닭 자체에 대한 방역은 전문 자문 기구에 의뢰하고 농장에서는 외부인, 차량 소독에만 신경 쓰면 될 정도로 체제를 갖추고 있다.

D종계장은 8개동에 성계 6만5천수의 종계가 사육되어지고 있으며 완전 무창자동화계사이기 때문에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완벽한 소독시설과 샤워장이 설치되어 있어 엄격한 소독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량의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출입자 명단에 방문사항을 기재하고 차량분무소독기를 통과하면서 분무기를 통해 소독이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사



△차량전면을 소독할 수 있는 종계장입구에 설치된 차량샤워 소독기

람의 경우 다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외부인이 계사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일차적으로 차단막에 설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을 하고 출입자 명단에 성명, 일시, 방문목적 등을 기록함은 물론 계사앞에 설치된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방역복(신발)을 갈아 입은 후 계사내의 준비실에 비치된 소독조에 최종적으로 발을 소독해야만 계사내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샤워장에는 충분한 방역복과 신발이 비치되어 있다.

차량소독기는 차량이 통과하면 감지기가 민감하게 작동

**부득이 기사출입을
해야 될 경우 반드시
사위를 하고 기사에
들어가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

하여 상하좌우에서 소독제가 차량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부 농장에서는 설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거나 되어 있어도 대형 사료차를 한꺼번에 소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가 짧아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종계장의 경우 대형 사료차를 충분히 방역할 수 있도록 1,300여만원의 설치비를 들여 소독조 앞뒤의 길이를 8m로

충분히 설계를 하였는데 일부에서는 2~3미터의 길이밖에 안되어 완벽한 방역이 힘든 농장도 있다.

농장의 고정 인부들이나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수의사 등 서비스맨들까지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걸쳐야 하며 응급시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생략이란 없다.

또한 사무실에 비치된 방명록은 질병발생시 외부인의 출입자에 의한 피해에 대해 원인

을 찾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종계장에서 가장 위험한 질병전파 대상으로 질병을 관리하는 수의사들이라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은 같은 차량, 복장, 장비로 여러 농장들을 다니는 관계로 질병을 옮기고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농장책임자들에게는 크게 작용하고 있어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관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쉬운 것은 아직 육성사가 건축중에 있는 관계로 출입제한 지역에는 출입자들이 지켜야 할 입간판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 차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은 이 종계장의 경우 초기에는 육성사를 성계사와 다른 지역에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이 심한 관계로 같은 장소에 육성사가 건축되고 있어 차후 성계사와의 완전 성역화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참고로 표1은 D농장의 방역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을 요하는 방역(접종 등)은 전문기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음수 등 간단한 방역은 자문을 충분히 받아 관리자들에게 의해 방역이 이루어 진다. 지난해 이 농장의 종계가 65주까지 종란을 생산하며 쓰여진 방역비를 보면 수당 985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표1. D종계장의 백신프로그램

기간(96. 3. 20-7. 23, 18주)

백신	접종방법 (일령)
IB	점안(1)
FP	피하(2)
ND	음수(8)
IB+ND	음수(18), 음수(28), 음수(45), 음수-필요시(65)
IBD	음수(8), 음수(20), 음수(30), 음수(50)
ILT	점비(35), 점안(111)
MG	흉근(35), 흉근(100)
BNE	다리근육 필요시(45), 다리근육(65), 다리근육(100)
AEP	피하(70)
AE	음수(120)
ING	다리근육(124)

* BNE: IB+ND+EDS, AEP: AE+FP, ING: IB+ND+IBD

기간별로 보면 육성기간은 465원(백신 170, 접종비 100, 항생제 175, 소독 20)이 총28주(육성기간 24주, 청소기간 4주)에 걸쳐 쓰여졌고 산란기간은 520원(영양제 400, 소독제 100, 청소및 크리닝 20)이 총 52주(산란기간 25-65주, 청소기간 11주)에 걸쳐 쓰여진 것으로 계산되었다.


계사를 비운 후에도 먼지와 암모니아 가스 등으로 불량해진 환경을 틈타 잠복해 있던 질병들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노계처리를 한 농장에서는 빈계사 청소 및 소독을 완벽하게 하여 먼지가 최소화 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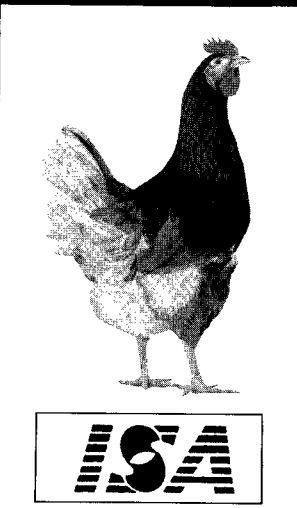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3. 결론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농장이 방역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백신만으로 100% 방역이 될 수는 없으며 격리와 매개체(계분, 먼지, 옷, 신발, 난좌, 장비 등)에 의한 전파 차단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사양기들이 더욱 절실이 느껴야만 근본적인 방역관리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추백리 등 질병이 없는 청정지역은

‘우수 종계장 인증제’를 도입하여 근절대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추백리 검색 방법, 살처분 보상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가며 방역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사양가 측에서는 다일령 계군의 사육, 연속적인 입추 등이 해결되지 않고 올인 올아웃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힘들며 어느 한 곳으로 문제를 집중시키지 말고 기본적인 사육 방식부터 질병, 인력관리, 환경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항상 피해가능성을 염두하여 종계장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양계

 최고의 성적
최고의 경제성



동 서 중 추 농 장

중추 전문업체인 동서축산이
신기부화장의 후원으로
철저한 육성관리와 방역으로
건강한 중추를 보급하겠습니다.

- 특란형 하이라인
- 이사브리온
- 위탁 사육
- 초생주 분양

사무실 : (0333)665-2148, 667-0772
농 장 : (0417)582-4745
휴대폰 : 011-345-8148, 011-350-8239
호출기 : 012-849-8148, 012-343-2148